

## “문화환경평가제 법제화 필요”

### 국회차원 여론 ‘환경평가’ 대체, 전통사찰·문화유적 보호 가능

#### 조계종도 “적극 추진” 밝혀

7월 이후 북한산 관동도로 공사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문화환경영향평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불교계에서 3·15 범불교대회와 환경집회 때마다 정부에 제도화를 촉구해온 문화환경영향평가제(이하 문화평가제)가 도입된다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를 포괄해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소음, 먼지, 진동, 지하수 고갈 등 환경오염에 노출된 종교문화유산과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해법, 문화평가제가 실시될 경우 사찰의 간접적인 환경 피해와 함께 문화재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화유적을 보호하는 불단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의 내실화와 간소화를 목적으로 사업특성과 입지조건을 고려, 문화·문화재 관련 항목에 대한 조사를 권고조항으로 다루고 있어 자연환경과 문화재 보호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산관동도로저지 시민중요연대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립공원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문화환경영향평가제 법제화 활동 법률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최근 재개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 공사의 재검토를 위해 국회 차원의 성명서 채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화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주장했던 이 미경(민주당) 의원 역시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 문제는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화재 보호 수질변화 대책, 차량소음 대책 등 문화환경에 대한 대책

이 전무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히고 “하반기 원구성이 이뤄지면 여야 합의에 의한 문화환경영향평가제도 입법화를 추진해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도 전통사찰과 역사문화유산보존을 위해 ‘문화환경영향평가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행에 따른 절차를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정책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 및 역사문화유산보호지구 도입 등 하류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사회국장 지거승님은 “문화환경영향평가 실시된다면 북한산에 분포된 불교문화재를 건설공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북한산도 환경현안이 시급한 만큼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shanrock@buddhapa.com

**법어 조대 금산 스님 목포 목우암 주석**

일상상에(日常三昧, 일행삼매)一行三昧를 하게 되면 일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에 매달리면 그것은 벌써 실패한 것입니다. 집착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심(無心)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불교는 문화콘텐츠 寶庫

불화(佛畵) 속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영산회상이나 지옥도(閻魔堂)의 경우 수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부처님과 제자들, 그리고 청중과 하늘사람들이 하나의 도란에 각자의 독특한 인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들 인물의 묘안은 경전에 묘사되는 역할 등에 따라 상당히 개성적으로 표현된다. 팔부신장 등 외호의 입무를 맡은 인물의 경우 무서운 얼굴에 무기를 들게 된다.

텐츠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가운데 하나다. 사업 주체인 호남대학교는 불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각기 분석해 2D와 3D 캐릭터 및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가운데는 만종스님의 단행본 8권여 점을 검토해 문양 위주의 작품을 일러스트 작업 과정을 거쳐 디지털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주연알케미)도 포함됐다. 불교를 문화콘텐츠 개발의 보고라고 보는 시각은 이제 낯설지 않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기반이 되어 온 불교는 종교적 범위를 넘어서 이젠 전통문화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보화 사회, 디지털 시대에 누가 어떤 시각으로 그 전통을 재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느냐 하는 것이다. 종교에 보물이 가득하다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보물을 잘 활용해 사람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해야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지옥도에 나타나는 악한 업을 지은 사람의 경우 거기에 맞는 흉한 얼굴로 묘사된다.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의 끔찍한 장면도 사실 그대로 묘사되는 것이 지옥도의 특징이다. 화악의 캐릭터와 지고 지신의 캐릭터가 불화에는 함께 묘사되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는 자신이 정보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라는 논리가 불교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한 생각을 풀려면 지옥과 극락도 종이 한 장 차이임을 잘 알고 있는 불교계에서 보다 획기적인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단 등이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다. 불화 속의 다양한 인물 모습이 캐릭터 사업에 접목된다. 불화 속의 인물들이 종교적 경건함을 살짝 비껴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인가? 이것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제2차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가운데 하나다. 사업 주체인 호남대학교는 불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각기 분석해 2D와 3D 캐릭터 및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연태(뉴미디어부 부장)



### “종교간 다양성 체험 교류 場 확대”

#### 아시아 종교인평화회의 인도네시아서 열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제 6차 총회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화해자로서의 아시아(Asia, the Reconciler)’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Yogyakarta)에서 한국

북한을 비롯 22개국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각 국의 종교 대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 스리랑카

및 네팔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새로운 화해 모델인 6·15 남북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는 인도네시아에 ‘비교종교, 문화 연구 센터’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향후 종교간 문화간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더욱 넓혀나가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wakemil@buddhapa.com

구독 신청 (02)737-0090

www.tanheo.com 7월8일 오픈

### 신도단체 실무자 워크숍

#### 지역·단체간 유대·현안 네트워크 모색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신도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대규모 워크숍을 27~28일 1박2일간 강원도 원주 한국레저개발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간, 단체간 실무책임자들의 교류를 통한 지역별 유대강화 및 지역적인 사업과 현안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중앙신도회의 조직화와 유대감 강화 △지역, 사찰, 단체간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연계 및 교류의 장 마련 △각급 단위 실무책임자들의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 파괴된 바미안 대불

#### 디지털로 원형 복원

지난 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의해 원형 파괴됐던 바미안 대불 3~4세기 경 제작, 높이 55m이던 대불 3尊을 디지털로 복원된다. 문화재 디지털 복원 전문가 박진호(숙명여대) 강사씨는 유네스코와 아프가니스탄이 복원을 계획 중인 바미안대불이 복원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3~4세기 경 처음 조성됐을 때의 모습으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기자 jnyil@buddhapa.com

### 불교문화 체험하고 신심도 키우고

#### 가자!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알선의 주인공이 될 새싹들 키우기 위해 제 5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연다. 미륵종을 법주사와 수영장을 볼이시설이 가득한 유스타운, 속리산 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마음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속리산 탐사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뜻깊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란다.

- 일 정: 2002년 7월 30일(월)~ 8월 1일(목) 2박3일
- 장 소: 속리산 법주사, 유스타운 일대
- 대 상: 초등학생 1~6학년(선착순 300명)
- 참가비: 7만원
- 준비물: 점심 도시락(합계),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 문의전화: (02-738-7860)
- 은행계좌: 농협 (00-02-177171) 예금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출발: 30일 오전 10시 조계사  
※도착: 8월 1일 오후 6시 조계사, 봉은사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 주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협찬: (사)보덕학회, 신수회
- 후원: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조계사, 한마음선원, 봉은사

### 불자의 생각

#### 금주의 주제: 성보박물관

1. 사찰에 갔을 때 성보박물관이 있으면 반드시 관람하십니까?  
① 반드시 한다 ② 가능하다면 한다 ③ 하지 않는다
2. 성보박물관을 관람할 때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설명 부족 ② 전시공간의 협소 ③ 전시유물의 빈약 ④ 기타

설문 참여: 7월 11일까지 buddhane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와 현대불교 378호 9면에 실립니다.

현 현대불교신문사

## “스님·불자님”

### 부다피아 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물”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 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 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 02-725-1132  
대표) 02-737-8881